

## 아동청소년문학 출판과 독자 구분

김민령\*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재 출판되고 있는 아동문학의 독자 구분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아동문학은 집필과 출판, 유통, 비평, 연구 등 전 분야에 걸쳐 아동 독자를 구분한다. 구분의 목적은 첫째, 실제 독자들에게 적절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수 있도록 편의와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비평 담론 내에서 평가 기준,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독서 관련 주요 기관에서는 아동문학의 독자를 학교급별(초, 중, 고), 학년별(저학년, 고학년 또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령 구분에 의해 유년동화, 저학년동화, 청소년소설은 분명한 하위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독자 구분 문제가 서사 장르에 집중되는 것은 대상 독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독자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독자 구분은 개별 독자의 문해력이 연령에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상 독자의 연령 폭을 넓히거나 도서를 난이도와 주제별로 분류하여 개별 독자가 자신의 문해력에 따라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제 독자의 읽기 행위와 독자 구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주제어 : 아동독자, 독자 구분, 권장도서목록, 장르 구분, 유년동화, 저학년동화, 청소년소설, 청소년소설, 그림책

\* 인하대학교, kmr0322@hanmail.net

— 목차 —

- |                                                                       |                                                                   |
|-----------------------------------------------------------------------|-------------------------------------------------------------------|
| 1. 서론<br>2. 독자 구분의 기준과 주체<br>(1) 권장도서 목록의 독자 구분<br>(2) 출판사, 서점의 독자 구분 | 3. 독자 구분의 내적 기준<br>(1) 동화·소설의 독자 구분<br>(2) 그림책·동시의 독자 구분<br>4. 결론 |
|-----------------------------------------------------------------------|-------------------------------------------------------------------|

## 1. 학생독자 그들은 누구인가?

아동문학은 일반 독자에서 아동 독자를 구분해 냄으로써 성립한다. 아동출판물의 선사시대에도 아동들은 책을 읽었다. 조선 후기 상업 출판물인 방각본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초기의 책들 중에는 <동몽선습>(1654, 전주) <명심보감초>(1664, 태인) 같은 아동용 학습서가 포함되어 있으며<sup>1</sup>, 방각본의 대다수를 차지한 고소설의 독자 중에도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다만 서구 아동 독자들이 아동문학이 생겨나기 이전에도 <로빈슨 크루소>나 <걸리버 여행기> 같은 작품들을 읽고 열렬히 반응을 보인 데에서 비슷한 추정을 해볼 뿐이다. 아동들이 가시적인 독서대중으로 드러난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비로소 아동문학이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읽히기 시작하였다. ‘고유한 요구와 관심’을 가진 아동 독자는 아동문학의 기본적인 전제인 것이다.

성인 독자로부터 아동 독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아동이 성인들과 다르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원수는 아동문학의 특징을 “1)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2) 소박 단순한 것이 많다. 3) 대상 독

1 이중환,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1, 30면.

자의 계층이 많고, 따라서 작품 내용의 난이의 차가 심하다. 4) 아동문학은 목적 의식에서 제작되는 일이 많다”<sup>2</sup>로 정리한다.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이란 기본적으로 아동의 인지능력과 정서반응, 경험 등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이다.

아동 독자를 성인 독자와 구분하는 기준은 아동문학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동이 성인과 다른 만큼이나 아동들 내부에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의 경우, 지속적으로 독자의 층위를 구분해내면서 갈래를 형성해왔다. 동화/소설의 장르 명칭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나 유년동화, 청소년소설의 형성 과정을 보면 아동 독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나이나 학령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영상물등급제 같은 아동기의 연령 구분이 아동의 보호와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아동출판물이 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별 작품이 얼마나, 어떻게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는가에 있다. 결국 난이도와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아동문학의 집필과 출판, 유통, 비평, 연구 등 전 분야에 걸쳐 아동 독자를 구분한다. 구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 독자들에게 적절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수 있도록 편의와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대표적으로 여러 기관과 독서운동단체에서 목록화하고 있는 추천도서가 있다. 학교와 도서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 문학교육에 있어 아동들에게 맞는 책을 골라주거나 고르도록 안내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다른 하나는 비평 담론 내에서 평가기준, 준거로서 독자를 구분한다. 저학년동화와 고학년동화가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가져야 한다면 그 기준은 개별 작품이 상정하고 있는 내포 독자가 작

2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웅진출판, 1984. (개정판, 소년한길, 2001) 11~13면.

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확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된다. 출판사의 시리즈 구분이나 공모전의 부문 구분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아우른다.

본 논문은 오늘날 아동청소년문학 담론 내에서 아동 독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문학의 장 내부에는 비평가, 연구자, 독서 기관, 출판사 등 여러 주체들이 활발히 독자 구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쉬울 뿐 아니라 독자 구분을 아동문학의 내적 자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고찰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문학의 독자 구분을 통해 그 밖의 아동 대상 출판물 역시 비취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은 아동문학의 하위 범주라기보다 별도의 매체적 특성을 지닌 출판물이지만 아동문학과의 연결선상에서 독자 구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포함하였다.

아동문학의 독자 구분은 아동문학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수용미학적 측면에서 아동 독자의 상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독자 구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계와 틈새를 사유함으로써 아동문학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독자 구분의 기준과 주체

아동문학 작가가 작품을 쓰기 위해 내포독자를 상정하는 문제는 작가 개인의 선택과 선호에 달려 있다. 대략 초등 저학년생 독자를 대상으로 할지, 고학년생 독자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구분이 될 것이다. 그래야 대

상 독자에 맞는 내용과 주제, 형식, 장르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하는 주제와 내용에 맞춰 대상 독자를 고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작가가 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원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편집·출판·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구획을 따라가는 것일까.

책(텍스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시간상 작가의 선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단계에서 적절히 분류되며, 그 분류에 맞는 독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가장 이른 선택이 이후의 선택들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자 구분의 문제에서는 어느 주체가 가장 먼저 독자를 구분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작가의 창작에서 시작하여 독자의 읽기 행위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차적이지만 독자 구분의 영향 관계는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가는 출판사의 시리즈나 공모전의 부문에 맞추느라 독자 선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출판사에서는 작가가 투고한 원고를 대상 독자에 따라 배치한다. 도서관이나 독서 단체에서는 출판사의 독자 구분을 수용하고, 반대로 출판사에서는 독서교육 현장이나 비평담론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동문학의 독자 구분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독자의 반응과 요구이다. 이제 막 혼자 읽기를 시도하는 초등 입학 전후의 아이들을 위해 유년동화가 필요하고, 아동과 성인 사이에 낀 특별한 존재로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소설이 필요한 이치다. 그러나 실제 독자의 구체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삼아 정확한 기준을 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정량적 연구에서는 그 표본을 아무리 많이 늘려 잡는다 해도 결국은 추상적인 평균을 구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으며, 질적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사례의 집합 이상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작가, 편집자, 교사, 사서, 학부모, 비평가인 성인들은 잠정적으로 아동 독자를 예상할 뿐이다.

학교급별(초, 중, 고), 학년별(저학년, 고학년 또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로 아동 독자를 구분하는 것은 관습적이지만 아동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선명한 기준선이기도 하다.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학년에 속해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친 아동은 비슷한 발달 과정에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학령이나 연령에 따라 아동을 구분하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무형의 재화에서도 일반적이다. 아동문학의 독자들 역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 1) 권장도서 목록의 독자 구분

여러 기관의 권장도서 목록을 살펴보면 수용의 차원에서 독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독서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아동 도서의 대상 독자를 표기하는 것은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아동 독자는 책의 선택, 구입, 독서 행위 전반에 걸쳐 성인 독자에 비해 제약을 받는다. 사회적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학부모, 교사, 사서 등의 성인 중재자들의 개입 때문이기도 하다. 성인 중재자의 개입은 한편으로는 아동이 갖는 여러 한계를 보완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이 주체적인 독자로 나아가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권장도서 목록이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대개는 교육적 목적을 지닌 성인 중재자가 주체로 나선다. 목록을 만드는 것도 목록에 따라 아동의 독서 기획을 수립하는 것도 성인 중재자인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추천도서’나 ‘권장도서’ 대신 ‘적합도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

안<sup>3</sup>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권장도서 목록이 갖는 위상은 분명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표하는 도서목록은 곧 텍스트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의미하여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권장도서 목록을 두고 비판적 논의가 이어진 까닭이기도 하다. 권장도서 목록은 기관별 홈페이지나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출판사에서 책의 뒤표지나 책날개에 추천 내역을 적극적으로 적어넣는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아동문학 도서를 추천 목록으로 발표하고 있는 주요 기관과 단체의 독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기관·단체의 권장도서 목록과 독자 구분

| 기관                      | 목록 명칭                                | 발행 주기 | 분류                                                                    |
|-------------------------|--------------------------------------|-------|-----------------------------------------------------------------------|
| 국립아동청소년도서관<br>‘도서관 이야기’ | 사서 추천도서 <sup>4</sup>                 | 월간    | 유아/저학년/고학년/청소년                                                        |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2018년 어린이도서<br>연구회가 뽑은 어<br>린이 청소년 책 | 연1회   | 1~3세, 4~5세, 6~7세, 10~11세,<br>12~13세, 13세부터, 16세부터                     |
|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br>만드는 교사들  | 공식추천도서                               | 연2회   | 아주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아<br>주 어려움                                        |
| (사)행복한아침독서              | 아침독서추천도서                             | 연1회   | 영유아(0~3세, 4~7세)<br>어린이(1~2학년, 3~4학년, 5~6학년)<br>청소년(중1~2, 중3~고1, 고2~3) |

3 이순영, 「텍스트 난도와 텍스트 선정에 관한 독자 요인-초·중·고등학교 독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시론」, 『독서연구』 제26호, 한국독서학회, 2011, 61~62면.

| 기관      | 목록 명칭                              | 발행 주기 | 분류      |
|---------|------------------------------------|-------|---------|
| 학교도서관저널 | 학교도서관저널<br>도서추천위원회가<br>선정한 ‘올해의 책’ | 연1회   | 어린이/청소년 |

‘세종도서’처럼 출판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선정목록의 경우 독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의 독서 행위에 직접 조력을 주고자 작성된 목록에서는 독자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연간으로 발간하는 도서목록을 살펴보면, 선정작업을 소개하면서 “학급문고와 학교도서관 기본장서 구성에 참고하기에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995년 『권장도서 목록』이 처음 발간된 이후 1996년부터는 학년별로 목록이 세분화되었다. 어도연의 권장도서목록은 2000년대 초반 가장 영향력 있는 목록으로 명성을 얻은 한편, 도서목록의 권력화, 특정 작가와 특정 출판사에 대한 편중, 구간(舊刊)의 고착화 등이 지적된 바 있다.<sup>5</sup> 그래서인지 선정작업의 취지와 과정을 소개하고 세부 내용의 기준, 통계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다른 어떤 목록보다도 목록의 내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좋다.

현재 어도연의 선정 도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며 “1~3세, 4~5세, 6~7세, 10~11세, 12~13세, 13세부터, 16세부터”로 대상 독자가 구분되어 있다. 어도연은 “대상독자는 그 연령에 국한해 읽을거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연령부터 읽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어도연의 독자 구분을 보면 학령이 아닌 연

4 『도서관 이야기』에서는 현재 따로 추천도서 목록을 게재하지 않는다.

5 오세란, 「(사)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한국 아동문학」,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0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58~68면 참조.



령을 기준으로 삼는데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연령은 13세이다. 우리 나라 학제에 따라 초등 6학년에 해당하는 13세는 보통 초등 고학년으로 묶이지만 여기에서는 청소년문학을 읽기 시작하는 독자로 이중 분류된다.<sup>6</sup>

청소년문학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목록으로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에서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선정하는 추천도서 목록이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추천도서가 분야별(과학/문학/예술/인문·사회), 상황별(예를 들어, 여행, 졸업, 경제적 빈곤 등), 연도별로 목록화되어 있으며, 여름과 겨울 방학용 추천도서도 소개되어 있다.<sup>7</sup> 특기할 점은 각 도서에 대해 ‘아주 쉬움/쉬움/보통/어려움/아주어려움’의 5단계로 난이도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야별 목록에서 문학 분야의 책들을 ‘중학생/고등학생/일반·교사’로 재분류해 보면 중학생 대상은 대개 ‘아주 쉬움/쉬움/보통’의 수준을 나타내는 책들이고, 고등학생 대상은 ‘어려움/아주어려움’ 수준의 책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준별 분류는 2018년 여름 목록부터 이루어졌는데 이전까지는 ‘중1부터/중2부터/중3부터/고1부터/고2부터’로 구분되어 있다. 대입해 보면 보통 수준은 중학교 3학년생부터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권장도서 목록이 일종의 ‘문학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도리어 아동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로 권장도서 혹은 추천도서 형태의 목록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 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국립아동청소년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월간 <도서관 이야기>는 창간(2006년 10월) 이후 ‘도란도란 읽어보자’ ‘사서 추천도서’ 등의 이름으로

6 “13세는 초등 6학년을 가리킵니다. 발달상에서 보이는 연속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초등 6학년부터 중2년까지와 그 이후 시기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서 수준과 취향에 따라 초등과 청소년 간에, 중등과 고등 간에 선택 폭을 열어두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2012년 목록, [http://www.childbook.org/new3/netc.html?html=netc\\_main2.html](http://www.childbook.org/new3/netc.html?html=netc_main2.html)

7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https://www.readread.or.kr/recommended-books/>

매달 소개하던 ‘추천도서’를 2016년부터는 더 이상 발표하고 있지 않다. 대신 전문 사서의 완결된 서평이나 이슈별로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도서 목록은 현재로서 가장 촘촘하게,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독자를 구분하고 있는 자료이다.

## 2) 출판사, 서점의 독자 구분

어도연은 권장도서의 대상 독자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출판사의 독자 구분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출판사에서 밝힌 대상 독자와 목록에서 밝힌 대상독자가 차이가 나는 수가 제법 많습니다. 글 분량만 갖고 기계적으로 독서수준을 판정하는 독서지도에서는 대상 독자를 잘못 안내하곤 합니다.”<sup>8</sup> 실제로 아동문학을 출판하는 주요 출판사들은 대상 독자에 따라 시리즈를 나누고 책의 체제, 판형, 원고 분량, 일러스트 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신국판인 고학년 문고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 분량이 적은 저학년은 보다 큰 판형에 더 많은 일러스트를 배치하고, 청소년소설에는 일러스트를 배제하는 식이다.

대체로 초등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령을 기준으로 저학년/고학년, 혹은 저학년/중학년/고학년으로 나누고 청소년소설은 따로 나누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아동문학 시리즈를 보유한 창비를 보면 대략 10년의 간격을 두고 저학년문고와 청소년문고가 뒤늦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계절의 경우도 아동문고-저학년문고-1318문고-중학년문고의 순으로 첫 책을 출간한다. 아동문고 시리즈가 시작할 때 평균적으로 잡은 아동 독자가 초등 고학년이었으며, 이후 독자의 층위가 다양

---

8 앞의 인터넷 주소.

해지면서 새로운 대상 독자에 맞는 책의 형태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리즈는 1997년 사계절의 1318문고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청소년소설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하나의 장르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저학년동화보다 더 낮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유년동화 시리즈가 본격화한다.

권장도서 목록의 독자 구분이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나뉘다면 출판사의 1차 기준은 원고 분량이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유년·저학년은 200매 이하, 고학년은 300매 내외, 청소년은 500매 이상의 원고 매수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편집 과정에서 작가와 편집자 사이에 논의를 통해 대상 독자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내용 수정이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의 볼륨 역시 미리 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 분량만 갖고 기계적으로 독서수준을 판정”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원고 분량이라는 기준은 명확한 데 반해 다른 문학 내적 평가 기준은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서사장르의 경우 인물의 연령, 사건과 플롯의 구성, 배경지식의 필요 유무, 장르 성격 등에 따라 대상 독자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대상 독자에 맞춰 정확히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공모전 역시 출판사의 독자 구분에 참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공모 안내를 통해 부문별 독자 대상과 원고 분량을 밝히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자 연령과 원고 분량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출판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출판사 주최 공모전이 출판을 전제로 시행되는 만큼 공모전의 부문이 드러내는 독자 구분은 출판사 보유 시리즈에 부합한다. 한편 공모전에서 뒤늦게 청소년 부문과 저학년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이들 독자들이 나중에 주목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저학년 부문의 신설은 공모전에서 고학년 대상 작품이 유

리하다는 점,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학년 대상 작품을 발굴해내기 어렵고 작가들의 동기 부여가 힘들다는 점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대상 독자에 따라 시리즈를 달리 구성하는 것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더욱이 오프라인 서점의 서가 배치나 온라인 서점의 상세 분류를 고려하면 독자 연령에 따른 구분은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판사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대상 독자의 연령 범위를 훨씬 넓게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 비룡소를 예로 들면, 시리즈 도서 표지에 소개되어 있는 독자 구분과 비교하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상 연령은 더 넓다. ‘난 책읽기가 좋아’ 1단계의 대상을 5~10세로, 2, 3단계는 6~13세로 범위를 넓혀 잡는다. 시리즈명에서부터 연령을 명시하고 있는 ‘일공일삼’ 시리즈도 8~20세까지 독자가 읽을 수 있다고 소개하며, 청소년문학선인 ‘블루픽션’은 10~25세로 일반적인 청소년의 범주를 앞뒤로 확장한다.

[표 2] 주요 출판사별 시리즈와 독자 구분<sup>9</sup>

| 출판사 | 시리즈                 | 첫 출간년도 | 사이즈(mm) | 독자 구분 |
|-----|---------------------|--------|---------|-------|
| 창비  | 첫읽기책                | 2014   | 153×210 | 유년    |
|     | 1,2,3학년을 위한 신나는 책읽기 | 1999   | 168×220 | 저학년   |
|     | 창비아동문고              | 1977   | 152×225 | 고학년   |
|     | 창비청소년               | 2007   | 152×210 | 청소년   |
| 사계절 | 사계절 웃는 코끼리          | 2010   | 160×210 | 7,8세  |
|     | 저학년문고               | 1997   | 165×215 | 저학년   |
|     | 중학년문고               | 2001   | 154×210 | 중학년   |
|     | 아동문고                | 1991   | 152×223 | 고학년   |
|     | 1318문고              | 1997   | 152×223 | 청소년   |

9 아동 대상 도서를 펴내는 출판사 중 연령별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전을 함께 운영해 독자 구분과 관련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좋은 곳으로 임의 선택하였다.

| 출판사  | 시리즈               | 첫 출간년도 | 사이즈(mm) | 독자 구분  |
|------|-------------------|--------|---------|--------|
| 문학동네 | 초승달문고             | 2003   | 170×220 | 1,2학년  |
|      | 반달문고              | 2000   | 170×220 | 3,4학년  |
|      | 보름달문고             | 2003   | 153×220 | 5,6학년  |
|      | 문학동네 청소년          | 2009   | 140×205 | 청소년    |
| 비룡소  | 난 책읽기가 좋아 1단계     | 1997   | 157×223 | 6,7세부터 |
|      | 난 책읽기가 좋아 2단계     | 1996   | 148×210 | 1,2학년  |
|      | 난 책읽기가 좋아 3단계     | 1997   | 155×222 | 3,4학년  |
|      | 일공일삼              | 1997   | 152×223 | 초등     |
|      | 블루픽션(비룡소 청소년 문학선) | 2002   | 133×203 | 십대     |

[표 3] 출판사 공모전과 독자 대상

| 출판사  | 공모 명칭         | 최초 수상 | 독자 대상          | 원고 매수            |
|------|---------------|-------|----------------|------------------|
| 창비   | 창비청소년문학상      | 2007  | 청소년            | 700매 내외          |
|      | 좋은어린이책(창작 부문) | 1997  | 저학년·유년         | 80~300매          |
|      |               |       | 고학년            | 300~500매         |
| 사계절  | 사계절문학상        | 2002  | 청소년            | 700매 내외(500~700) |
| 문학동네 |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 2000  | 저학년            | 100~150          |
|      |               |       | 중학년            | 200매 내외          |
|      |               |       | 고학년            | 300매 내외          |
|      |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   | 2011  | 청소년            | 500매 안팎          |
| 비룡소  | 황금도깨비         | 1992  | 초등 중고학년        |                  |
|      | 비룡소문학상        | 2011  | 7~10세 저학년      | 100매 내외          |
|      | 블루픽션          | 2007  | 청소년            |                  |
|      | 스토리킹          | 2013  |                |                  |
|      | No.1 마시멜로 픽션  | 2016  | 초등고학년<br>여자어린이 | 300매 내외          |
|      | 이동화가 재미있다     | 2018  | 초등학생           | (글 부문) 200매 내외   |

교보문고(광화문)나 영풍문고(종로) 같은 대형 서점은 유아와 아동 코너를 구분하여 각각 서가를 배치하지만 유아/아동 분류 내에서 모든 책을 연령별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유아 코너에서는 평매대에서 0~3세 그림책과 4~7세 그림책을 나누어 전시하지만 일반서가에서는 0~3세용 토이북을 따로 분류할 뿐 그림책은 연령별 구분을 하지 않고 출판사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아동도서 서가를 보면 한국사, 세계사, 과학, 우주/도감, 삼국지/속담/따라쓰기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분명하고 많이 출판되는 내용의 책들이 따로 분류된다. 연령별 구분은 아동문학 중에서도 동화(소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출판사별 시리즈를 배치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동시는 따로 구분되며 연령별 재구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프라인 서점은 전반적으로 체계적 분류보다는 직관적이고 수요 중심적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서점은 대상 독자의 연령뿐 아니라 주제, 장르, 교과연계 같은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연령에 따른 구분이 가장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 주로 초등 1~2학년/3~4학년/5~6학년/전체학년으로 분류된다.

그림책은 0~3세와 4~7세로 독자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그림책의 독자를 초등 저학년까지의 아동으로 한정했던 과거에 비해 초등 고학년, 청소년, 더 나아가서는 성인 독자들도 기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림책들이 많아졌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경우 전체 분류에서는 유아 항목에 그림책을 배치하지만 그림책 항목으로 들어가면 '0~3세/4~7세/100세까지'로 재분류된다. 유아의 행동발달과 말놀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드북 형식의 '아기 그림책' 시리즈에서 보듯, 아직 스스로 글을 읽지 못하고 서사를 따라가기 어려운 0~3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은 비교적 구분이 선명하다. 그러나 개별적인 그림

책의 분류를 살펴보면 0~3세와 4~7세의 분류가 중복되거나 4~7세와 100세까지의 분류가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 텍스트의 분량, 중심인물과 서사의 유무, 의미의 다층성 등을 기준으로 자의적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3. 독자 구분의 내적 기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분야의 독자 구분 주체가 어떤 위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창작-편집-출판-유통-독서-비평의 과정에서 독자 구분의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순환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이다. 본고에서 텍스트 자체의 독자 구분을 뒤에서 논의하는 까닭은 독자 구분의 미학적·장르적 요인을 논의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독자반응이론의 차원에서 텍스트가 독자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포독자에 따라 어떤 텍스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독자에게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부여한다. 독자의 개입에 의해 비로소 텍스트는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문학 연구에서 독자는 이론상 슈퍼독자나 이상적 독자가 될 수 없으며 내포독자와 실제 독자 역시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다.

내포독자를 설정하는 데 있어 독자를 구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발달 과정이 저마다 다른 아동들의 경우 독자의 연령에 따라 활용하는 어휘, 문체, 서사 전략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대로 텍스트의 난이도와 독자의 연령(학령)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

다는 일반론 외에 다른 기준은 찾기 어렵다. 독자 구분의 필요와 이유는 분명한데 반해 연령 외의 내적 기준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개별 독자의 자질과 상황, 환경 등을 객관적 지표로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표본을 많이 취해 평균적인 독자의 상을 그려본다 해도 지극히 개인적 행위인 책 읽기에 있어서 평균이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sup>10</sup>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지적 신체적 발달 상태가 달라진다는 점<sup>11</sup>도 보편적 기준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아동문학 작가들이 아동의 이런 까마득히 넓은 나이의 폭을 두고 그 어느 위치, 어느 세계에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쉽게 논정할 수 있다. 가령 이 동화는 초등학교 5·6년생에게 알맞다든지, 6·7세 아이들을 위해 쓴 동화라든지, 이 시는 대체로 12세 정도는 되어야 이해할 수 있겠다든지, 이 소설은 중학생들이 주로 읽도록 쓴 것이라든지…… 이렇게 대체로 독자의 대상을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란 긴 성장 과정에서 오는 아동세계의 격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아동의 심리와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이오덕은 「아동문학과 서민성」에서 아동문학이 아동의 현실을 제대로

10 아동청소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난이도와 텍스트 선택 과정을 살피는 연구는 문학교육학, 문헌정보학, 독서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방법이 모두 활용되어 독자들의 반응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데 학생들의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적합도서’ 선택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독서 수준을 측정하는 논문이 많다. 정진수, 「어린이 독자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권 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진선희, 「독서 성향면에서 본 어린이 독자」, 『독서연구』 제16호, 한국독서학회, 2006. 박영민, 「독자에게 적합한 도서의 수준과 측정 방법」, 『독서연구』 제26호, 한국독서학회, 2011.

11 학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를 중등교육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는 까닭이다.

12 이오덕, 「아동문학과 서민성」,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비, 1977, 108면.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논의를 펼치는데 먼저 구체적인 대상 독자를 정하는 문제를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독자의 사회적·연령적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작품에서 얻는 감동이란 것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얕어지는 것이 상례”<sup>13</sup>라는 것이다. 이원수가 ‘독자 대상의 계층’을 언급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문학이 연령에 따라 독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는 기본 원칙에 가깝다. 통시적으로 청소년소설, 저학년동화, 유년동화 등 독자 구분에 따라 세부 장르가 형성되어 온 것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아동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의 빈틈을 채우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 1) 동화, 소설의 독자 구분

현재 유년,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 등의 연령 개념은 아동문학을 분류하는 내적 자질로도 인식되고 있어 유년동화, 저학년동화, 청소년소설은 분명한 하위 장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화/소설을 각기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구분은 동화와 소설 사이의 장르 구분과도 연동되며 대상 독자의 연령이 각기 다른 장르적 특질을 낳는다고 설명한다. 10세를 기준으로 공상성을 좋아하는 저학년과 합리적 사고를 하는 고학년으로 나누면, 저학년 대상 서사는 “단일한 구성, 간결한 문장, 쉬운 언어”를 가진 비교적 짧은 동화로 수렴되고 고학년 대상 서사는 “비교적 구성이 치밀하고 복잡하며 문장도 길어”지는 비교적 호흡이 긴 소설로 수렴되는 것이다.<sup>14</sup> 내용상으로도 저학

13 앞의 책 109면.

14 권혁준, 「고학년 아동을 독자로 하는 서사물은 ‘아동소설’이다」, 『창비어린이』 제30호, 창비, 2010, 33면.

년 서사는 상상의 이야기나 가벼운 일상적 이야기를 선호하고, 고학년에 이르러서야 인간관계의 복잡한 갈등과 심리적 부침,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다룰 수 있다고 간주한다. 현실과 비현실이 일차원에 놓이는 동화적 세계는 저학년에, 사실주의적 현실 세계는 고학년에 적합하지만 저학년 생활동화와 고학년 판타지나 SF 같은 장르문학은 이런 구분을 가로지른다. 초등 3~4학년을 일컫는 중학년 대상 서사는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출판 시장의 편의적 분류로 봐도 무방하다.

유년동화도 이제 막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초등 입학 전후의 아이들을 대상 독자로 한다는 점에서 출판계가 주도적으로 일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림책과 읽기 책 사이의 간격은 단순히 연령의 공백을 메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동문학 공모전이 뒤늦게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부문을 나눈 것은 상대적으로 저학년 동화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독자의 수요와 비평적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유년동화 역시 7,8세 전후의 아이들이 책 읽기에 재미를 느끼고 서사를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화된 이야기로 채워진다.<sup>15</sup> 인물의 행동반경이 좁고 갈등은 단순하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비인간 주인공이 등장하는 의인동화와 옛이야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유년동화의 특징을 내재화하면서 대상 독자의 수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그 자체로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유은실의 『나도 편식할 거야』(사계절, 2011), 이은정의 『목기린 씨, 타세요』(창비, 2014), 위기철

15 『창비어린이』의 2011년 봄호 특집 ‘유년동화의 길찾기’의 박숙경과 김지은의 글은 유년동화의 장르적 특집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의 『초록 고양이』(사계절, 2016) 등은 독자와 평단의 반응을 두루 이끌어 낸 바 있다.

유년동화가 그림책과 읽기 책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장르로서 대상 독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준다면, 청소년소설은 기존 아동문학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독자층을 끌어들인다.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성인 대상의 책들을 읽어야 했던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날 아동문학 대신 아동청소년문학이라는 용어가 활발히 쓰이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현재는 문학뿐 아니라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한 청소년소설이 먼저 독자를 찾아내고, 그 독자의 수요를 따라가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독자는 아동 독자와 달리 연령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학교급이 다른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나누지 않는 것은 청소년소설의 서사와 세계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정혜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바람의아이들, 2004) 같은 작품이 ‘중학생소설’이라는 설명을 달고<sup>16</sup> 출간된 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학생소설이나 고등학생소설이라는 명칭은 쓰이지 않는다. 현재 인터넷 서점에 ‘중학생소설’을 검색어로 넣어 보면 대부분 교과서에 수록되거나 필독서로 분류된 학습서 성격의 앤솔로지들이 올라온다. 등장인물의 연령과 그에 따라 사건과 배경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 말고는 둘 사이를 구분할 미학적 특질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16 앞표지 책날개에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는 동화작가 이정혜가 처음으로 쓴 중학생소설이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서운동 단체의 권장도서 목록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대상 청소년 독자의 연령을 구분한다.

초등 6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지식과 경험의 축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를 보이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아동문학이 독자를 구분하면서 독자층의 수요를 채워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새로운 구분점이 생길 것이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간 고등학생 인물과 고등학교 배경을 중심으로 쓰여졌던 청소년소설이 최근 중학생을 활발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 2) 그림책, 동시의 독자 구분

한때 그림책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통념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초등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도 그림책의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유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을 담은 그림책도 있고, 유아와 성인이라는 이중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크로스오버 그림책도 많다. 그림책은 더 이상 아동문학의 하위범주로 어린 연령의 독자를 담당하기보다는 매체적 특징을 활용하며 독자를 특정하지 않는 별개의 범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출간되는 그림책의 절대 다수는 아동 독자들을 상대한다.

0~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은 그 나이대 유아들의 발달과정에 부응하여 반복과 모방, 놀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말놀이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보드북 형태로 제작된다. ‘아기 그림책’, ‘잠자리

그림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출판되는 0~3세 그림책들은 놀이와 학습, 잠재우기 같은 유아 양육자들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만지고 누르면 반응하도록 특수 장치가 되어 있거나 물고 빨 수 있도록 형겼으로 제작된 '토이북'보다는 책에 가깝지만 "텍스트는 적고, 연속되는 그림들을 특별하게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한 책"<sup>17</sup>이라는 일반적인 그림책의 정의에 부합하기보다는 그림책 이전 단계에 놓인 놀이 용도의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유아가 글자를 배우기 이전부터 책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0~3세 그림책은 비교적 분류가 선명한 데 반해 4~7세 그림책을 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과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책의 특성으로 인해 '적은 텍스트와 풍부한 그림'을 수용하는 데는 최소한의 문해력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림책의 독자를 유아에 한정하지 않는다. 일례로 '2018년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 청소년 책' 목록에는 전체 43권의 그림책이 담겨 있는데 분류된 전 연령에 고루 배치되어 있다. "1~3세 2권, 4~5세 4권, 6~7세 15권, 8~9세 12권, 10~11세 6권, 12~13세 1권, 13세 2권, 16세 1권"로 주로 초등 중학년 이하 연령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13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동화와 동시를 권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 초등학교 이상 독자들에게까지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유아가 아니라 다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높은 연령의 독자를 대상으로 제작되는 그림책도 있다. 아동과 성인 모두를 독자로 하는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경우 "텍스트 내에서 의

17 마틴 슬즈베리, 모렉 스타일스 지음, 서남희 옮김, 『그림책의 모든 것Children's Picturebooks:The Art of Visual Storytelling』, 시공사, 2012, 7면.

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표층서사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에 도달할 수 있는 심층 서사로 이분화”<sup>18</sup>된다. 이때 아동 독자는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만을 파악하고, 성인 독자들만이 가시적 텍스트와 잠재적 텍스트의 존재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그림책의 경우 유아(아동) 독자가 성인 독자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소한 의미를 발견하고 파악하는 경우도 있어 아동 독자와 성인 독자 간에 일방향의 위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창립한 그림책협회에서는 그림책이 그간 아동출판물의 하위 범주로 다루어졌던 데에서 벗어나 예술장르적·산업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문화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림책과 달리 동시는 아동문학의 하위 갈래임이 명백하다.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는 대체로 일반 문학의 하위 장르에 대응하는데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든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누든 시가 문학의 중요한 갈래라는 점은 분명하다. 동시 역시 동화와 더불어 아동문학을 이루는 기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화가 대상 독자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조정하고 나름의 미학을 발전시켜 온 데 반해 동시는 독자 구분을 중요한 의제로 삼지 않는다. 1940년대 후반 ‘유년동시, 소년시’라는 용어가 ‘유년동화, 소년소설’의 서사장르에 대응하여 사용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곧 자취를 감춘다.<sup>19</sup> 동요와 동시의 장르 구분, 동시와 어린이시의 개념과 문학적 의미 등을 둘러싸고 동시의 하위 장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18 이성엽, 「크로소버 그림책의 이중 수용 양상 : 『Pish, Posh, Said Hieronymus Bosch』 분석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14, 204면.

19 김제근, 「해방 후 아동문학 ‘운문 장르’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 36면.

동시 독자를 학령에 따라 구분하고 장르 구분의 내적 준거로 삼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시에서는 누가 읽느냐보다 누가 쓰느냐가 더 논쟁적인 주제인 셈이다.

동시의 독자를 학령에 따라 구분하는 사례는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문학교육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이향근은 초등 교과서에 실린 특징 시가 “학년을 넘나들며 실리기보다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서 반복적으로 실리는 것으로 볼 때, 학습자의 발달과정에 맞는 것으로 검증된 제재”<sup>20</sup>라고 평가하며 “발음하기 쉽고 반복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단시(短詩)나 언어 유희 동시들은 초등 저학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sup>21</sup>고 설명한다. 또 권혁준은 초등 교과서에 쓰인 장르 용어와 관련하여 ‘동시’는 주로 저학년에서 사용되고 고학년에서는 ‘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서 교과서 편찬자 및 국어교육학자들이 “‘동시’를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 어린이’들을 독자로 하는 운문 장르로 생각하는 것 같다”<sup>22</sup>고 추정한다. 이렇듯 동시에 대한 문학교육에서는 대체로 고학년과 저학년 학습자를 구분하여 사고한다. 그러나 “동시 텍스트에 대한 감상이나 의미 해석보다는 학습 목표로 제시된 학습 요소를 배우는 데 교과서 내용이 구상”<sup>23</sup>되었다는 한계를 놓고 보면 이러한 독자 구분을 동시 자체의 논의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청소년시는 청소년소설의 대립항으로 설정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고한 지위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의 독자로서

20 이향근, 「교과서 동시 텍스트의 수록과 쟁점, 전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356면.

21 위의 논문, 368면.

22 권혁준, 「초등 문학교육 장르 용어의 통시적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80면.

23 이향근, 앞의 논문, 366면.

청소년을 주목하고 청소년의 삶과 감정을 담은 고유한 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청소년소설이 그러했듯이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창비, 단비, 라임 같은 출판사에서 청소년 시집 시리즈를 출판하고 이에 따라 시인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의 문집 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인 시인이 쓴 청소년시가 중고등학생이 쓴 시와 어떻게 변별되고 수용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다만, 어도연의 2018년 목록에서 13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추천된 시집 두 권이 모두 청소년시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빨리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현재 출판되고 있는 아동문학이 대상 독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독서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발표하는 권장도서목록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독자를 구분하고 있다. 출판사와 서점 역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출판물의 생산·유통의 주체로서 독자 구분을 통해 독자를 안내한다. 이와 관련하여 창작자나 비평가, 연구자들은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독자를 내적 준거로 받아들인다. 구분 주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자를 구분하고 대상 독자를 확장하는데 이를 통해 아동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안으로는 장르의 미학을 성립해 나간다.

아동청소년문학이 대상 독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독자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독자 구분 문제가 서



사 장르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 편의 시를 읽고 올바른 문학적 이해에 이르는 일은 소설이나 동화를 읽고 이해하는 이상으로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동시의 특성상 길이가 짧고 쉽고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연령 이상이면 동시를 읽을 수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대상 독자의 계층’을 나누거나 연령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달리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림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시와 그림책은 잘 훈련된 비판적 독자에게만 보이는 비유와 상징, 사회적 맥락, 상호텍스트성 같은 심층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아동 독자 집단 내부의 차이와는 차원이 달라 독자 구분보다는 아동과 성인이라는 이중 독자의 문제와 관련된다.

독자 구분과 관련하여 학령이나 연령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서 선택의 편의 때문이다. 이때의 편의란 실제 독자인 아동들의 편의이기도 하지만 학부모, 교사, 출판 유통 종사자 등 성인들의 수월한 선택을 위한 편의이기도 하다. 개별 독자들의 문해력은 정확히 계량되기 어려우므로 학령이 구분하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의 독자를 상정하여 그에 맞는 수준의 도서를 연결짓는 것이다. 이때 학령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란 주제와 형식 모두에 해당되며 공교육 체제의 문학교육 과정과도 관련된다. 독자 구분의 주체가 성인이라는 점은 독자 구분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동문학이 성인 생산자-아동 수용자 간의 위계를 특징으로 갖는 만큼 아동 독자는 일방적으로 구분된 독자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장 도서 목록이 필독 도서 목록이 되어 아동들에게 특정 도서가 강권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상 독자의 연령 폭을 넓히거나 도서를 난이도와 주제별로 분류하여 개별 독자가 자신의 문해

력에 따라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추세이다.

독자 구분을 통해 대상 독자를 정확히 선별하고 명시하는 것이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는 독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지, 독자 구분이 작가에게는 또다른 제약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대상 독자 선정과 실제 수용 과정의 불일치는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의 문제는 비평적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듯하다. 특히 실제독자의 수용과 관련한 독자 구분 문제는 여러 궁금증을 남긴다. 대상 독자 선정과 텍스트의 형식·내용의 불일치가 비평적 가치 평가의 대상의 되기도 하는 만큼 실제 독자가 읽기 행위에서 독자 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원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동문학과 아동출판물, 아동 독자, 읽기 행위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의문점인바 개별 문학 텍스트와 실제 독자를 이어주는 일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평론

- 권혁준, 「고학년 아동을 독자로 하는 서사물은 ‘아동소설’이다」, 『창비어린이』 제30호, 창비, 2010, 27~33면.
- \_\_\_\_\_, 「초등 문학교육 장르 용어의 통시적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33~89면.
- 김제곤, 「해방 후 아동문학 ‘운문 장르’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 31~64면.
- 박영민, 「독자에게 적합한 도서의 수준과 측정 방법」, 『독서연구』 제26호, 한국독서학회, 2011, 33~59면.
- 오세란, 「(사)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한국 아동문학」,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0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41~73면.
- 이성엽,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이중 수용 양상 : 『Pish, Posh, Said Hieronymus Bosch』 분석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14, 187~208면.
- 이순영, 「텍스트 난도와 텍스트 선정에 관한 독자 요인-초·중·고등학교 독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시론」, 『독서연구』 제26호, 한국독서학회, 2011, 61~96면.
- 이향근, 「교과서 동시 텍스트의 수록과 쟁점, 전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351~380면.
- 정진수, 「어린이 독자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권 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417~437면.
- 진선희, 「독서 성향면에서 본 어린이 독자」, 『독서연구』 제16호, 한국독서학회, 2006, 113~161면.

### 2. 단행본

- 마틴 솔즈베리, 모렉 스타일스 지음, 서남희 옮김, 『그림책의 모든 것Children's Picturebooks: The Art of Visual Storytelling』, 시공사, 2012.
- 이오덕, 『아동문학과 서민성』,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비, 1977.
-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웅진출판, 1984.(개정판, 소년한길, 2001)
- 이중한,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1.

3. 기타

도서관 이야기 <https://www.nlcy.go.kr/menu/17510/bbs/30019/bbsList.do>

문학동네 <http://www.munhak.com>

비룡소 <http://bir.co.kr>

사계절 <http://www.sakyejul.net>

어린이도서연구회 <http://www.childbook.org>

창비 <https://www.changbi.com>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https://www.readread.or.kr>

학교도서관저널 <http://www.slj.co.kr>

행복한 아침 독서 <http://www.morningreading.org>

## Abstract

# The Reader's Classific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Kim, Min-r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ader distinction patterns of children's literature that are currently being published. Today's children's literature distinguishes children's readers across all areas, including writing and publishing, distribution, criticism and research. The purpose of the distinction is to provide practical readers with the convenience and assistance to select and read the appropriate books, and secondly to prepare standards and standards for evaluation within the critical discourse.

In major institutions related to reading, it is common to divide the readers of children's literature into school grades (e.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grades (either low, high or low, middle or high school). Also, by age classification, childhood fairy tales, low-grade fairy tales, and teen novels are clearly sub-genre. The reason why readers are asked to distinguish themselves is because the problem of identifying target readers focuses on how difficult it is to digest.

The reader's distinction has the limitation that individual readers' literacy is not exactly consistent with age. Therefore, the current trend has been to expand

the age range of target readers, or to classify books by difficulty level and subject so that individual readers can find and read according to their literacy. In the future, it will be a task of constant interest to figure out how the reader's reading behavior and his or her classification are linked.

■ Keywords : children's readers, readership, recommended book list, childhood fairy tales, low-grade fairy tales, children's novels, Adolescent Novel, picture books

■ 논문접수일: 2019. 5. 1.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